조계종 “국민 마음 보듬는 종단될 것”

조계종, 병오년 시무식 개최
1월 5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37대 집행부 마지막 해로
종무원들에 “낮은 자세” 당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은 1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병오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열었다. 사진은 시무식 이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마지막 해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로 나아가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종도를 섬기는 종단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1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곧 새롭게 여는 일”이라며 이같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과 스님들에게 삼배로 신년하례를 받은 뒤 준비된 신년사에 앞서 그간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백양사 주지를 지내다 2017년 느닷없이 총무원에 오게 됐고 어찌하다 총무원장 대행과 불교신문 사장, 교육원장을 거쳐 총무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총무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회주(자승 스님) 스님과 만당 스님의 입적을 겪으며 인간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찰나찰나 수행자·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힘이 (어려움을) 버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처작주 입처개진(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의 주인이 되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무원 청사 화재 복구와 관련해서도 “1층 로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동선에 불편이 있겠지만,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니 조금만 더 힘내 달라”고 종무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신년사에서 한국불교가 사회와 호흡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스님은 “불교는 도량 안에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천의 종교”라며 “사회적 약자, 갈등과 상처의 현장, 불안과 불신이 깊어진 공동체 속에서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실제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가 단발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공의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낮은 자세의 서비스’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종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며 불편을 덜어 주는 행정이 곧 수행이라는 마음으로 종무에 임해 달라”며 “우리가 낮아질수록 종단은 더욱 단단해지고 신뢰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종단의 얼굴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은 유은수 종무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교단 발전을 위해 원력을 세운 초발심을 다시 새기고, 변화 속에서 부처님 법을 받들어 사찰과 스님, 신도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종무원이 되겠다”며 “새로운 도량에서 우리 원력이 사회로 회향돼 한국불교 중흥의 밑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염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에 법만 스님 신규 위촉

진우 스님, 1월 6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 법계품서를 관장하는 법계위원에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새롭게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만 스님에게 법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법계위원회는 종단의 경륜 있는 어른 스님들이 모인 위상 높은 기구”라며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돼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종단의 어른인데, 법만 스님이 그 역할에 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만 스님은 “법계위원 스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만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사미계, 198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11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선운사 주지, 선운사 참당선원 선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강화 보문사 주지에 원경 스님

적석사·옥천암·원통사 임명



조계종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에 원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3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보문사 주지(사찰관리인)에 원경 스님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보문사는 종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찰인 만큼 잘 이끌어 진정한 직영사찰의 모범이 되어 주고, 종단과 종도 간 화합에도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경 스님은 “과분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총무원장 스님 잘 모시고, 전임 주지 선조 스님이 다져온 기반 위에서 종단 목적사업을 성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1월 6일 직할교구 사찰인 강화 적석사 주지에 환풍 스님, 서울 옥천암 주지에 선조 스님, 서울 원통사 주지에 석중 스님을 임명하고, 각 사찰의 특성을 살려 기도정진 도량으로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새해 첫 행보는 소외이웃과 함께

1월 1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서 신년 첫 108배

소외이웃과 떡국 공양…현안 경청
“정부·정치권에 목소리 전달” 약속


진우 스님은 108배 후 봉은사 구생원에서 활동가들과 떡국 공양을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경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아침을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108배로 시작하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발원했다. 또 각종 현안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일 오전 8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새해맞이 108배 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108배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쿠팡 물류센터,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등의 대표 활동가들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봉은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과 참석자들은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리며 빈곤과 차별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함께 발원했다. 108배 후에는 선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 평안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108배 후에는 경내 구생원에서 떡국 공양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진우 스님은 노동, 인권, 주거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경청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종단의 역할을 모색했다.

먼저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진우 스님은 연기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잣대를 넘어 그들이 겪는 실질적인 괴로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부처님 정신”이라며 차별없는 자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건물주 반대와 정부 방관 속에서 800여 명의 서울 동자동 주민들이 힘겨운 환경에 처한 상황,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잇따른 사망사고, 이주민 노동자 산재사망 등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진우 스님은 “불교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자비로 보듬어야 하는 게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언급하며 “생명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겠다”며 “수렴된 고충과 현안을 단순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전달,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후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동자동 주민이 그린 그림으로 제작된 2026년 달력을 진우 스님에게 선물하며 조계종의 연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은해사 주지 선거에 성로·덕관 스님 출마

1월 16일 육화원서 산중총회


성로 스님


덕관 스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성로·덕관 스님이 입후보했다. 은해사 차기 주지는 1월 16일 예정된 산중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1월 6일 오후 5시 은해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과 전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이 출마했다. 추첨으로 기호 1번에 성로 스님, 기호 2번에 덕관 스님이 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 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1월 16일 오후 1시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동방불교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12.22~2026.02.05

동방불교대학 QR code

모집학과
불교학과
- 2년 과정
- 인터넷 강의

범패학과
- 2년 과정
- 주 1회 출석 강의

자격 및 서류
자격
- 만 18세 이상
- 학력제한 없음
-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 대학 홈페이지: http://dongbang.org/

원서 접수 기간
- 2025.12.22~2026.02.05

접수처 (우편,팩스,이메일)
- 팩스: 02-733-0728
- 이메일: dongbang2030@naver.com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 010-3224-3454

합격자 발표
- 2026.02.26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층 TEL: 02-745-2030 FAX: 02-733-0728